

A Study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Activity needs desired by Youth -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

Kwon, Il Nam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ungji University

Background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and level of participation of youth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desired by youth. The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is as follows.

Methodology: A survey was conducted on adolescents, and the SPSS 21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method, and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were applied.

Findings: First, the path to learning youth facilities was through friends or seniors and juniors. When using youth facilities, the lack of regional representative programs, lack of publicity of institutional programs, and lack of program diversity compared to other regions were considered problems. Second,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is that they can fill in their shortcomings, revive their strengths, and express their thoughts in various ways. In addition, I thought it would help develop leadership in community activities or making new friends Third, teenagers wanted to be able to demonstrate their leading capabilities rather than simply participate in activities.

Conclusions: The aim is to get directions for implementing youth activity policies based on new transformation and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and field-oriented demands necessary for better youth activities in the future.

Keywords: Youth activities, Gyeonggi-do youth, Status of activities, Youth demands

Corresponding Author: Kwon, Il Nam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u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03674,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01-5770-7937>

Email: choungji@mju.ac.kr

Received: October 16, 2021 Revised: October 17, 2021 Accepted: October 17, 2021 Publication: September 30, 2021

청소년이 바라는 활동요구 실태조사 분석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인식과 참여수준을 파악하며 향후 청소년들이 바라는 활동을 조사함에 있다.

방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 백분비, χ^2 -검증 등을 적용하였다.

결과: 첫째,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였다. 청소년시설 이용 시 지역 대표 프로그램 부족, 기관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타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등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효과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강점을 살려주며,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동체활동이나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데, 리더십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은 활동 단순한 참여보다는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

시사점: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변혁과 지원, 향후 더 나은 청소년활동추진에 필요한 현장중심 요구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방향을 얻고자 한다.

주요어: 청소년활동, 경기도청소년, 활동실태, 청소년 요구

본 연구는 2021년 경기도활동진흥센터 연구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교신저자: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ORCID: <http://orcid.org/0000-00001-5770-7937>

투고일: 2021. 10. 16 **심사일:** 2021. 10. 17 **게재확정일:** 2021. 10. 17 **발행일:** 2021. 09. 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활동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를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능력 즉 균형적 성장을 위한 역량개발을 갖추도록 함에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나온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7]이 곧 청소년활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8]에서는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행동을 실현할 기회의 마련, 지도자 등 인력확보, 행·재정적 지원 등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한 기반과 인프라의 구축과 전개, 각종 조례와 법체계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 재원지원 등이다^[9].

그간 청소년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정책의 정교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지원과 함께 핵심역할을 각각의 기관에서 충실히 이행해 왔는가를 판단하는 등 나름 큰 기여를 해 왔다.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소년정책의 바탕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대책의 마련은 물론 중장기적 전략에 대한 수많은 투자를 당연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21년 7월 현재 10-19세 인구규모가 1,326,320명이고, 20-29세 인구규모가 1,809,310에 이르고 있어 다른 지역의 청소년인구보다 크다. 그러므로 더욱 청소년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청소년정책의 균질화, 정교화, 세밀화를 위한 절대적 지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실행적 가치가 증시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기도는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서울에 근접해 있고,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나누어져 있어 경기남부에 청소년시설과 재단 등이 포진해 있고, 청소년활동 접근이나 각

중 정책적 혜택이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지리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해당 정책을 통해서 획득해야 할 절대적 정책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정책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과도 같다. 의도적인 정책소외가 아니라 지역의 개발과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문화적 혜택과 소비지향적 수단의 열악성은 곧 청소년기에 더욱 더 사회지향적 속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 지역가치의 존중 등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경기북부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한 경기북부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시설, 특성화시설에 요구에 있어서도 경기북부 청소년들보다 경기남부 청소년들의 요구가 더 많아 경기북부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경기도내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고 동시에 경기북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청소년의 권리증진, 청소년활동기회 보장, 미래사회의 적응역량 강화 등의 실제적 지원의 부족과 문제점을 충분히 지각하며 개선점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미래사회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의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성화된 청소년정책활동을 구현해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북부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정책방향,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 청소년활동의 특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과 운영방향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청소년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가장 기초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변혁과 지원, 향후 더 나은 청소년활동추진에 필요한 현장중심 요구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방향을 얻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지역의 청소년활동의 방향과 각 청소년중심의 정책을 위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함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기 북부지역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수준을 파악하여 인식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봄

② 경기 북부지역 청소년이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의 형태, 청소년지도사에게 요구하는 바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특색을 이루기 위한 통합된 활동의 과제를 발굴함

II. 본 론

1.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변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이라고 말하며 특별하게 발달과정에서 반드시 획득되어야 할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 건전한 자아개념 형성 등의 방법을 구현하고자 각종 체험적 기회를 통한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은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높으면 공동체의식도 향상된다(6).

청소년활동을 유형별로 특이한 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청소년 활동과 연관해서 사람들은 봉사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봉사경험이 진로발달이나 주관적 안녕감, 공동체 의식 등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4).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사회적 기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활동은 균형성장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의 의미를 전개하고자 청소년활동역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바 청소년 역량에 관한 사회적 인식으로 청소년, 연구, 지원, 프로그램, 역량, 교육 순으로 활동의 의미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형식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양적이고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속성을 보면 초기의 청소년기본법의 구현과정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의 노정을 겪어 왔는바 초기에는 주로 야외활동, 캠프활동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는 곧 수련활동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수련활동은 곧 자연권이라는 대규모 시설의 확장을 불러 일으켰고 동시에 정부정책 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설확대, 민간영역에서 수련활동증진 등이 주요 정책으로 마련되었다.

수련활동의 확장은 자연과 야외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경진대회 등과 같은 청소년지도자에게는 단순하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체중심 활동에 기반을 두고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청소년활동의 수요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청소년들이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기 위한 체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과정은 청소년활동 변화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같은 현장중심, 체험활동은 외부환경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009년 신종플루 감염,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5년 메르스 유행,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와 같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 대형사건과 안전관련 사건사고의 영향으로 다수 또는 외부활동이 직격탄을 받았으며 청소년활동의 수렴을 억제하는 각종 사전신고제, 의무 인증제 등과 같은 제도적 압박은 청소년활동이 위축을 넘어 고사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안전인데, 청소년활동의 매력성을 높이면서 안전이 담보된 정책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과 청소년활동의 관계를 해결하고자 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수련활동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이 안전을 담보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활동의 위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요구는 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의 수용, 자신의 미래진로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는 체험의 다양화 등은 오히려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혁신을 수용해야 할 조건과 여건의 필요성을 더욱 심오하게 바꾸어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청소년자기주도활동의 개념정의와 특성분석 [3]을 통해 청소년활동이 단순히 체험에 중점을 둬서 아닌 자아인식의 관점을 토대로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론과 성향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파구로 캠핑의 일상화, 캠핑카의 구입, 야외에서의 활동을 더욱 선호하는 등의 일상의 변화라는 점을 새롭게 맞이하는 등의 일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은 거의 존재부재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 간 관계나 모임의 부재가 극에 달하였기에 코로나19의 두려움은 상쇄할 수 없는 한계였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활동에서 보여야 하는가의 여부인데 이에 대한 실행적 근거가 매우 미비하였다는 점은 곧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적극 수용하여 정보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화상을 통한 다양한 활동의 방식을 도입하여 생각과 행동 등을 표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비대면시대에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인터넷, 유튜브, 지도자의 노력 등이 돋보였고 비대면을 통한 진로탐색 등을 많이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신세대의 욕구를 부응해 주기 위한 혁신적 노력에 많은 열정을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원하는 또 다른 관점은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활동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연구[5] 등을 통한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더 이상 주먹구구식 접근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혁신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맞추는 혁신적인 청소년활동의 개편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경기북부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활동 참여수준과 요구, 희망활동 등을 위한 조사하였고 분석방법은 SPS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 백분비, χ^2 -검증 등을 적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청소년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자 37.7%(812명), 여자 62.3%(1,34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17세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8세(33.5%), 14세이하(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경기남부 거주 청소년이 55.6%로, 경기북부 거주하는 청소년 4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활동의 이해와 참여정도

1) 청소년활동의 참여수준

(1) 지난 1년(2020년)동안 청소년시설 이용도

2020년 동안 지역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경험(42.0%)보다는 이용 경험이 없다(58.0%)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 이하(14세 이하(61.3%), 15세(52.9%))의 경우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자	700	35.2	35.2
	여자	1287	64.8	100.0
연령	14세이하	288	14.5	14.5
	15세	346	17.4	31.9
	16세	333	16.8	48.7
	17세	372	18.7	67.4
	18세	483	24.3	91.7
	19세이상	165	8.3	100.0
지역	경기북부	843	42.4	42.4
	경기남부	1144	57.6	100.0
	전체	1987	100.0	

〈표 III-2〉 청소년시설 이용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 p
성별	남자	326	373	699	1.996 .158
		46.6%	53.4%	100.0%	
	여자	638	639	1277	34.403 .000
		50.0%	50.0%	100.0%	
연령	14세이하	174	110	284	
		61.3%	38.7%	100.0%	
	15세	182	162	344	
		52.9%	47.1%	100.0%	
	16세	165	165	330	
		50.0%	50.0%	100.0%	
	17세	151	220	371	
40.7%		59.3%	100.0%		
18세	212	270	482		
	44.0%	56.0%	100.0%		
19세이상	80	85	165		
	48.5%	51.5%	100.0%		
지역	경기북부	405	433	838	.121 .750
		48.3%	51.7%	100.0%	
	경기남부	559	579	1138	
		49.1%	50.9%	100.0%	
	전체	964	1012	1976	
		48.8%	51.2%	100.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7세 이상(17세(40.7%), 18세(44.0%), 19세 이상(48.5%))의 경우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없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시설 이용 횟수

청소년시설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3>와 같다. 전체적으로 한달에 1~2회 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1회 정도 이용한다(24.1%), 1년에 한두번(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청소년시설 이용 횟수

구분	거의매일	주1회 정도	한 달에 1~2회	두세 달 1회	1년에 한두 번	기타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45 12.5%	88 24.4%	111 30.7%	55 15.2%	56 15.5%	6 1.7%	361 100.0%	10.572 .061		
	여자	62 9.2%	161 23.9%	253 37.6%	80 11.9%	113 16.8%	4 .6%	673 100.0%			
연령	14세이하	34 18.3%	40 21.5%	53 28.5%	26 14.0%	31 16.7%	2 1.1%	186 100.0%	86.915 .000		
	15세	19 9.7%	71 36.2%	67 34.2%	18 9.2%	19 9.7%	2 1.0%	196 100.0%			
	16세	30 17.1%	40 22.9%	61 34.9%	18 10.3%	24 13.7%	2 1.1%	175 100.0%			
	17세	7 4.0%	34 19.5%	59 33.9%	37 21.3%	34 19.5%	3 1.7%	174 100.0%			
	18세	10 4.6%	49 22.4%	81 37.0%	28 12.8%	50 22.8%	1 .5%	219 100.0%			
	19세이상	7 8.3%	15 17.9%	43 51.2%	8 9.5%	11 13.1%	0 0.0%	84 100.0%			
	지역	경기북부	40 9.1%	104 23.7%	173 39.4%	47 10.7%	70 15.9%	5 1.1%		439 100.0%	8.541 .129
		경기남부	67 11.3%	145 24.4%	191 32.1%	88 14.8%	99 16.6%	5 .8%		595 100.0%	
전체		107 10.3%	249 24.1%	364 35.2%	135 13.1%	169 16.3%	10 1.0%	1034 100.0%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한달에 1~2회 정도 이용한다가 가장 높지만 15세의 경우 주1회 정도 이용한다가 3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전체적으로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 청소년시설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소에 알고 있어서(15.7%), 가족(17.4%), 학교 선생님(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표 III-4>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

구분	홍보물	친구 선후배	학교 선생님	가족	인터넷	일간지 및 지역 신문	언론 매체	평소 알고 있어서	기타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33 9.1%	106 29.3%	53 14.6%	74 20.4%	34 9.4%	6 1.7%	2 0.6%	46 12.7%	8 2.2%	362 100.0%	15.101 .057
	여자	48 7.0%	212 31.1%	80 11.7%	107 15.7%	95 14.0%	6 .9%	2 0.3%	118 17.3%	13 1.9%	681 100.0%	
연령	14세이하	18 9.3%	38 19.7%	22 11.4%	66 34.2%	26 13.5%	2 1.0%	0 0.0%	18 9.3%	3 1.6%	193 100.0%	123.497 .000
	15세	12 6.1%	50 25.4%	18 9.1%	49 24.9%	33 16.8%	0 0.0%	1 0.5%	30 15.2%	4 2.0%	197 100.0%	
	16세	13 7.4%	56 32.0%	25 14.3%	28 16.0%	17 9.7%	0 0.0%	0 0.0%	31 17.7%	5 2.9%	175 100.0%	
	17세	15 8.7%	72 41.9%	27 15.7%	9 5.2%	17 9.9%	5 2.9%	2 1.2%	24 14.0%	1 0.6%	172 100.0%	
	18세	15 6.8%	74 33.5%	26 11.8%	20 9.0%	30 13.6%	3 1.4%	1 0.5%	46 20.8%	6 2.7%	221 100.0%	
	19세이상	8 9.4%	28 32.9%	15 17.6%	9 10.6%	6 7.1%	2 2.4%	0 0.0%	15 17.6%	2 2.4%	85 100.0%	
	지역	경기북부	35 7.9%	122 27.6%	53 12.0%	79 17.9%	56 12.7%	4 .9%	1 0.2%	80 18.1%	12 2.7%	
경기남부	46 7.7%	196 32.6%	80 13.3%	102 17.0%	73 12.1%	8 1.3%	3 0.5%	84 14.0%	9 1.5%	601 100.0%		
전체	81 7.8%	318 30.5%	133 12.8%	181 17.4%	129 12.4%	12 1.2%	4 0.4%	164 15.7%	21 2.0%	1043 100.0%		

경우가 각각 29.3%,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14세 이하는 가족(34.2%)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15세 이상(15세(25.4%), 16세(32.0%), 17세(41.9%), 18세(33.5%), 19세 이상(32.9%))은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 청소년시설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홍보물, 인쇄매체, 일간지 및 지역신문, 인터넷을 통해 시설을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시설 이용한 친구나 선후배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시설 이용의 아쉬운 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평소 아쉬운 부분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전체적으로

<표 III-5> 청소년시설 이용과 관련한 아쉬운 점

구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미래 창의적 프로그램이 미흡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부족	청소년들이 만든 프로그램 부족	대표 프로그램 부족	시설 열악하다	홍보 미흡	기타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44 12.6%	28 8.0%	41 11.7%	46 13.2%	53 15.2%	33 9.5%	58 16.6%	46 13.2%	349 100.0%	13.653 .058
	여자	96 14.9%	44 6.8%	80 12.4%	68 10.5%	135 20.9%	52 8.0%	119 18.4%	52 8.0%	646 100.0%	
연령	14세이하	27 15.1%	20 11.2%	17 9.5%	19 10.6%	27 15.1%	12 6.7%	36 20.1%	21 11.7%	179 100.0%	68.552 .001
	15세	31 16.4%	14 7.4%	13 6.9%	22 11.6%	29 15.3%	21 11.1%	34 18.0%	25 13.2%	189 100.0%	
	16세	30 17.4%	9 5.2%	14 8.1%	17 9.9%	41 23.8%	15 8.7%	25 14.5%	21 12.2%	172 100.0%	
	17세	26 16.0%	12 7.4%	27 16.6%	31 19.0%	24 14.7%	12 7.4%	22 13.5%	9 5.5%	163 100.0%	
	18세	19 9.1%	11 5.3%	39 18.7%	16 7.7%	50 23.9%	16 7.7%	43 20.6%	15 7.2%	209 100.0%	
	19세이상	7 8.4%	6 7.2%	11 13.3%	9 10.8%	17 20.5%	9 10.8%	17 20.5%	7 8.4%	83 100.0%	
	지역	경기북부	74 17.6%	27 6.4%	40 9.5%	40 9.5%	77 18.3%	33 7.9%	87 20.7%	42 10.0%	
경기남부		66 11.5%	45 7.8%	81 14.1%	74 12.9%	111 19.3%	52 9.0%	90 15.7%	56 9.7%	575 100.0%	
전체	140 14.1%	72 7.2%	121 12.2%	114 11.5%	188 18.9%	85 8.5%	177 17.8%	98 9.8%	995 100.0%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이 1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17.8%), 타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14.1%), 학교 연계 프로그램 부족(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 이하의 경우 기관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14세이하(20.1%), 15세(18.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6세는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23.8%), 17세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 부족(16.6%), 18세는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23.9%), 19세 이상은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20.5%)과 기관 프로그램 홍보 부족(20.5%) 등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에서는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을, 16세 이상에서는 프로그램 부족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청소년시설에서 연령에 맞춰 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의 경우 기관 프로그램 홍보 부족이 2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18.3%), 타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남부의 경우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19.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관 프로그램 홍보(15.7%), 학교 연계 프로그램 부족(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생각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6>와 같다. 전체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고 싶다가 5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없다(18.5%), 관심은 있으나 시설이 멀어서(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45.3%)과 여자청소년(59.6%) 모두 생각은 있으며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모든 연령(14세 이하 66.7%, 15세 59.4%, 16세 48.0%, 17

<표 III-6>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생각

구분	기회되면 참여	시설이 너무 멀다	관심이 없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반대	학업에 방해	기타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222 45.3%	81 16.5%	122 24.9%	28 5.7%	29 5.9%	8 1.6%	490 100.0%	31.562 .000
	여자	488 59.6%	108 13.2%	120 14.7%	42 5.1%	49 6.0%	12 1.5%	819 100.0%	
연령	14세이하	116 66.7%	18 10.3%	25 14.4%	4 2.3%	5 2.9%	6 3.4%	174 100.0%	58.610 .000
	15세	123 59.4%	24 11.6%	37 17.9%	11 5.3%	8 3.9%	4 1.9%	207 100.0%	

〈표 III-6〉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생각 (계속)

구분	기회되면 참여	시설이 너무 멀다	관심이 없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반대	학업에 방해	기타	전체	X ² , p	
연령	16세	98 48.0%	29 14.2%	45 22.1%	20 9.8%	9 4.4%	3 1.5%	204 100.0%	58.610 .000
	17세	152 55.7%	45 16.5%	43 15.8%	18 6.6%	14 5.1%	1 .4%	273 100.0%	
	18세	159 47.0%	54 16.0%	76 22.5%	13 3.8%	31 9.2%	5 1.5%	338 100.0%	
	19세이상	62 54.9%	19 16.8%	16 14.2%	4 3.5%	11 9.7%	1 .9%	113 100.0%	
지역	경기북부	293 54.2%	74 13.7%	110 20.3%	23 4.3%	31 5.7%	10 1.8%	541 100.0%	4.842 .436
	경기남부	417 54.3%	115 15.0%	132 17.2%	47 6.1%	47 6.1%	10 1.3%	768 100.0%	
전체	710 54.2%	189 14.4%	242 18.5%	70 5.3%	78 6.0%	20 1.5%	1309 100.0%		

세 55.7%, 18세 47.0%, 19세 이상 54.9%)에서 생각은 있으며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① 부족한 점을 채우는데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7>와 같다. 전체적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약 52.0%로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37.6%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경우 약 49.4%, 여자청소년의 경우 약 53.3%가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14세 이하(54.2%), 15세(58.4%), 16세(51.6%), 17세(53.2%), 18세(46.2%), 19세이상(49.1%) 등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7〉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33 4.7%	57 8.1%	264 37.7%	261 37.3%	85 12.1%	700 100.0%	17.711 .001
	여자	21 1.6%	97 7.5%	483 37.5%	506 39.3%	180 14.0%	1287 100.0%	
연령	14세이하	12 4.2%	21 7.3%	99 34.4%	99 34.4%	57 19.8%	288 100.0%	38.665 .007
	15세	6 1.7%	19 5.5%	119 34.4%	150 43.4%	52 15.0%	346 100.0%	
	16세	7 2.1%	27 8.1%	127 38.1%	126 37.8%	46 13.8%	333 100.0%	
	17세	10 2.7%	33 8.9%	131 35.2%	161 43.3%	37 9.9%	372 100.0%	
	18세	15 3.1%	45 9.3%	200 41.4%	173 35.8%	50 10.4%	483 100.0%	
	19세이상	4 2.4%	9 5.5%	71 43.0%	58 35.2%	23 13.9%	165 100.0%	
	지역	경기북부	27 3.2%	59 7.0%	318 37.7%	330 39.1%	109 12.9%	
경기남부		27 2.4%	95 8.3%	429 37.5%	437 38.2%	156 13.6%	1144 100.0%	
전체		54 2.7%	154 7.8%	747 37.6%	767 38.6%	265 13.3%	1987 100.0%	

② 강점을 살려주는 데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이 나의 강점을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8>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65.1%가 활동은 나의 강점을 살려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29.6%), 그렇지 않다(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62.5%) 보다 여자청소년(66.6%)이 활동은 나의 강점을 살려주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8> 나의 강점을 살려주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17 2.4%	36 5.1%	210 30.0%	300 42.9%	137 19.6%	700 100.0%	16.720 .002		
	여자	10 0.8%	41 3.2%	379 29.4%	620 48.2%	237 18.4%	1287 100.0%			
연령	14세이하	3 1.0%	12 4.2%	75 26.0%	134 46.5%	64 22.2%	288 100.0%	27.813 .114		
		15세	3 0.9%	10 2.9%	98 28.3%	159 46.0%	76 22.0%		346 100.0%	
	16세	4 1.2%	16 4.8%	88 26.4%	149 44.7%	76 22.8%	333 100.0%			
		17세	5 1.3%	17 4.6%	127 34.1%	166 44.6%	57 15.3%		372 100.0%	
	18세	7 1.4%	18 3.7%	155 32.1%	232 48.0%	71 14.7%	483 100.0%			
		19세이상	5 3.0%	4 2.4%	46 27.9%	80 48.5%	30 18.2%		165 100.0%	
	지역	경기북부	14 1.7%	37 4.4%	257 30.5%	367 43.5%	168 19.9%		843 100.0%	5.703 .222
		경기남부	13 1.1%	40 3.5%	332 29.0%	553 48.3%	206 18.0%		1144 100.0%	
전체	27 1.4%	77 3.9%	589 29.6%	920 46.3%	374 18.8%	1987 100.0%				

③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은 내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III-9>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66.8%가 내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0%, 도움이 안된다가 5.2%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62.0%)보다 여자청소년(69.5%)이 내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청소년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9〉 나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18 2.6%	38 5.4%	210 30.0%	285 40.7%	149 21.3%	700 100.0%	27.201 .000		
	여자	9 0.7%	38 3.0%	346 26.9%	629 48.9%	265 20.6%	1287 100.0%			
연령	14세이하	4 1.4%	3 1.0%	77 26.7%	128 44.4%	76 26.4%	288 100.0%	29.189 .084		
	15세	3 0.9%	11 3.2%	84 24.3%	168 48.6%	80 23.1%	346 100.0%			
	16세	5 1.5%	10 3.0%	91 27.3%	154 46.2%	73 21.9%	333 100.0%			
	17세	3 0.8%	20 5.4%	110 29.6%	171 46.0%	68 18.3%	372 100.0%			
	18세	9 1.9%	26 5.4%	149 30.8%	211 43.7%	88 18.2%	483 100.0%			
	19세이상	3 1.8%	6 3.6%	45 27.3%	82 49.7%	29 17.6%	165 100.0%			
	지역	경기북부	17 2.0%	35 4.2%	234 27.8%	384 45.6%	173 20.5%		843 100.0%	5.230 .264
		경기남부	10 0.9%	41 3.6%	322 28.1%	530 46.3%	241 21.1%		1144 100.0%	
전체	27 1.4%	76 3.8%	556 28.0%	914 46.0%	414 20.8%	1987 100.0%				

④ 다른 친구의 발표나 표현으로 새로운 생각 발견 정도

청소년활동 안에서 다른 친구가 발표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인식 조사결과는 <표 III-10>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7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3.5%, 그렇지 않다가 4.7%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66.6%)보다 여자청소년(74.6%)이 다른 친구가 발표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0〉 다른 친구의 발표나 표현으로 새로운 생각 발견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16 2.3%	27 3.9%	191 27.3%	292 41.7%	174 24.9%	700 100.0%	18.309 .001
	여자	12 0.9%	38 3.0%	276 21.4%	582 45.2%	379 29.4%	1287 100.0%	
연령	14세이하	3 1.0%	7 2.4%	68 23.6%	119 41.3%	91 31.6%	288 100.0%	24.104 .238
	15세	6 1.7%	7 2.0%	80 23.1%	154 44.5%	99 28.6%	346 100.0%	
	16세	5 1.5%	21 6.3%	70 21.0%	133 39.9%	104 31.2%	333 100.0%	
	17세	5 1.3%	14 3.8%	94 25.3%	170 45.7%	89 23.9%	372 100.0%	
	18세	7 1.4%	11 2.3%	119 24.6%	220 45.5%	126 26.1%	483 100.0%	
	19세이상	2 1.2%	5 3.0%	36 21.8%	78 47.3%	44 26.7%	165 100.0%	
지역	경기북부	18 2.1%	33 3.9%	199 23.6%	366 43.4%	227 26.9%	843 100.0%	7.874 .096
	경기남부	10 0.9%	32 2.8%	268 23.4%	508 44.4%	326 28.5%	1144 100.0%	
전체	28 1.4%	65 3.3%	467 23.5%	874 44.0%	553 27.8%	1987 100.0%		

⑤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이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1>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63.1%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59.9%)보다 여자청소년(64.8%)이 더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6세(69.3%), 14세 이하(63.5%), 19세 이상(63.0%), 15세(61.3%),

〈표 III-11〉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21 3.0%	33 4.7%	227 32.4%	258 36.9%	161 23.0%	700 100.0%	19.322 .001
	여자	9 0.7%	66 5.1%	378 29.4%	505 39.2%	329 25.6%	1287 100.0%	
연령	14세이하	1 0.3%	19 6.6%	85 29.5%	108 37.5%	75 26.0%	288 100.0%	33.640 .029
	15세	7 2.0%	12 3.5%	115 33.2%	127 36.7%	85 24.6%	346 100.0%	
	16세	6 1.8%	18 5.4%	78 23.4%	128 38.4%	103 30.9%	333 100.0%	
	17세	5 1.3%	23 6.2%	110 29.6%	156 41.9%	78 21.0%	372 100.0%	
	18세	8 1.7%	23 4.8%	163 33.7%	189 39.1%	100 20.7%	483 100.0%	
	19세이상	3 1.8%	4 2.4%	54 32.7%	55 33.3%	49 29.7%	165 100.0%	
	지역	경기북부	17 2.0%	42 5.0%	252 29.9%	320 38.0%	212 25.1%	
경기남부		13 1.1%	57 5.0%	353 30.9%	443 38.7%	278 24.3%	1144 100.0%	
전체		30 1.5%	99 5.0%	605 30.4%	763 38.4%	490 24.7%	1987 100.0%	

18세(59.8%) 순으로 모든 연령에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협업이나 공동체의식의 중요성 배움 정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협업이나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전체적으로 68.8%가 청소년활동이 친구들과 협업이나 공동

〈표 III-12〉 협업이나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21 3.0%	31 4.4%	205 29.3%	291 41.6%	152 21.7%	34.888 .000
	여자	5 .4%	37 2.9%	321 24.9%	613 47.6%	311 24.2%	
연령	14세이하	1 .3%	6 2.1%	84 29.2%	130 45.1%	67 23.3%	29.029 .087
	15세	3 .9%	8 2.3%	88 25.4%	159 46.0%	88 25.4%	
	16세	8 2.4%	11 3.3%	90 27.0%	136 40.8%	88 26.4%	
	17세	7 1.9%	12 3.2%	108 29.0%	179 48.1%	66 17.7%	
	18세	6 1.2%	25 5.2%	121 25.1%	215 44.5%	116 24.0%	
	19세이상	1 .6%	6 3.6%	35 21.2%	85 51.5%	38 23.0%	
지역	경기북부	14 1.7%	39 4.6%	219 26.0%	368 43.7%	203 24.1%	9.200 .056
	경기남부	12 1.0%	29 2.5%	307 26.8%	536 46.9%	260 22.7%	
전체	26 1.3%	68 3.4%	526 26.5%	904 45.5%	463 23.3%	1987 100.0%	

체의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63.3%)보다 여자청소년(71.8%)이 청소년활동이 친구들과 협업이나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을 통해 나의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13>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62.0%가 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57.6%)보다 여자청소년(64.4%)이 나의 리더십을 키우는 데 청소년활동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3>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20 2.9%	37 5.3%	240 34.3%	257 36.7%	146 20.9%	18.252 .001
	여자	11 0.9%	62 4.8%	385 29.9%	517 40.2%	312 24.2%	
연령	14세이하	3 1.0%	16 5.6%	90 31.3%	101 35.1%	78 27.1%	20.089 .452
	15세	5 1.4%	11 3.2%	122 35.3%	125 36.1%	83 24.0%	
	16세	6 1.8%	13 3.9%	93 27.9%	136 40.8%	85 25.5%	
	17세	5 1.3%	22 5.9%	114 30.6%	159 42.7%	72 19.4%	
	18세	10 2.1%	29 6.0%	158 32.7%	184 38.1%	102 21.1%	
	19세이상	2 1.2%	8 4.8%	48 29.1%	69 41.8%	38 23.0%	
지역	경기북부	15 1.8%	43 5.1%	260 30.8%	318 37.7%	207 24.6%	2.676 .613
	경기남부	16 1.4%	56 4.9%	365 31.9%	456 39.9%	251 21.9%	
전체	31 1.6%	99 5.0%	625 31.5%	774 39.0%	458 23.0%	1987 100.0%	

⑧ 배려 능력을 배우는 데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이 배려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66.7%가 청소년활동이 친구나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능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60.1%)보다 여자청소년(70.3%)이 청소년활동이 친구나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능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4> 배려 능력 배우는 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20 2.9%	40 5.7%	219 31.3%	266 38.0%	155 22.1%	49.241 .000
	여자	2 0.2%	41 3.2%	339 26.3%	601 46.7%	304 23.6%	
연령	14세이하	1 0.3%	11 3.8%	81 28.1%	115 39.9%	80 27.8%	28.907 .090
	15세	2 0.6%	5 1.4%	95 27.5%	172 49.7%	72 20.8%	
	16세	6 1.8%	12 3.6%	85 25.5%	147 44.1%	83 24.9%	
	17세	6 1.6%	20 5.4%	118 31.7%	155 41.7%	73 19.6%	
	18세	5 1.0%	24 5.0%	140 29.0%	201 41.6%	113 23.4%	
	19세이상	2 1.2%	9 5.5%	39 23.6%	77 46.7%	38 23.0%	
	전체	22 1.1%	81 4.1%	558 28.1%	867 43.6%	459 23.1%	
지역	경기북부	14 1.7%	38 4.5%	232 27.5%	362 42.9%	197 23.4%	5.091 .278
	경기남부	8 .7%	43 3.8%	326 28.5%	505 44.1%	262 22.9%	
전체	22 1.1%	81 4.1%	558 28.1%	867 43.6%	459 23.1%	1987 100.0%	

⑨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 정도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59.1%가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58.8%)보다 남자청소년(59.4%)이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63.5%)가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5세(62.7%), 16세(60.0%) 등

<표 III-15> 건강한 신체 유지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 p	
성별	남자	23 3.3%	38 5.4%	223 31.9%	248 35.4%	168 24.0%	700 100.0%	18.028 .001
	여자	16 1.2%	62 4.8%	451 35.0%	509 39.5%	249 19.3%	1287 100.0%	
연령	14세이하	2 0.7%	8 2.8%	95 33.0%	104 36.1%	79 27.4%	288 100.0%	34.938 .020
	15세	2 0.6%	26 7.5%	101 29.2%	139 40.2%	78 22.5%	346 100.0%	
	16세	10 3.0%	15 4.5%	108 32.4%	124 37.2%	76 22.8%	333 100.0%	
	17세	8 2.2%	19 5.1%	131 35.2%	148 39.8%	66 17.7%	372 100.0%	
	18세	14 2.9%	25 5.2%	172 35.6%	182 37.7%	90 18.6%	483 100.0%	
	19세이상	3 1.8%	7 4.2%	67 40.6%	60 36.4%	28 17.0%	165 100.0%	
지역	경기북부	23 2.7%	50 5.9%	284 33.7%	310 36.8%	176 20.9%	843 100.0%	7.426 .115
	경기남부	16 1.4%	50 4.4%	390 34.1%	447 39.1%	241 21.1%	1144 100.0%	
전체	39 2.0%	100 5.0%	674 33.9%	757 38.1%	417 21.0%	1987 100.0%		

의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연구목적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이고, 청소년시설 이용 시 아쉬운 부분은 지역 대표프로그램 부족, 기관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타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들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활동의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욕구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알릴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보편적 인식에 있어서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고, 강점을 살려주며,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여겼다. 또한 공동체활동이나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데, 리더십을 키우는 데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 및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요구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참여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의 형태를 원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1. 교육부(2015) 2015 개정교육과정.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https://www.moe.go.kr/>)
2. 권일남·김태균 (2011). 청소년의 핵심역량증진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시설환경, 9(2), 27-37. (Kwon IN, Kim TK. (2011). Development of a Social Interaction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Adolescent's Key Competenc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9(2), 27-37)
3. 권일남·전명순·김정률 (2019).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의 개념정의와 특성 분석. 청소년활동연구, 5(2), 1-29. (Kwon IN, Jeon MS, Kim JY. (2019). Concep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Youth Self-directed Activity.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5(2), 1-29)
4. 안재진·김선숙·이경상 (2017).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1), 85-107. (Ahn JJ, Kim SS, Lee KS. (2017). Effects of the Types of Volunteer Activities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nd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Youth Welfare, 19(1), 85-107). <http://dx.doi.org/10.19034/KAYW.2017.19.1.04>.
5. 조현주 (2020).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 활동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1). 25-46. (Cho HJ. (2020). A Study on the Social Perception of Youth Activity and Competency based on Big Data.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6(1), 22-46)
6. 주계순·권일남 (201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연구, 4(2). 1-25. (Ju GS, Kwon IN. (2018). Effect o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on School Adjustment-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4(2), 1-25)
7.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lInfoP.do?efYd=20201120&lsiSeq=218027#0000>. (Youth Basic Law. https://www.law.go.kr)
8. 청소년활동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lInfoP.do?efYd=20201120&lsiSeq=218029#0000>
<https://www.bigkinds.or.kr/>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Law. https://www.law.go.kr)
9.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Wiley-Interscience.

10. Klemp, G. O., (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Washington, DC.
11. McLagan, P. A., (1989). Models for HRD practice: The models. Alexandria, VA: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